

“하나님의 법”(롬 7:22, 25; 8:7)에 대한 또 다른 이해

조호형*

1. 서론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노모스’(νόμος)는 “율법”이나 때로는 “법”으로 번역된다.¹⁾ 이 번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일관되게 기록된(written) 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바우어(W. Bauer)는 ‘노모스’의 의미를 성문화된 “법”으로만 이해하려는 시도를 안타까워하며, 이는 성경 해석의 풍성함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²⁾ 로우(J. P. Louw)와 나이다(E. A. Nida) 역시 바우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노모스’를 기록된 법으로만 이해하는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³⁾ 실제로 이 단어는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당대에도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노모스’를 율법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의미를

*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hajunyou0914@chongshin.ac.kr.

1) 저작성 논란이 있는 서신들과 저작성 논란이 없는 서신들에 나타난 ‘노모스’의 용례는 약 121회 정도 등장하며, 만약 고전 9:21에 나타난 ‘아노모스’(ἄνομος)와 ‘엔노모스’(ἔννομος)를 ‘노모스’가 들어간 합성어로 고려한다면, 그 용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노모스’의 많은 용례가 기록된 “법,” 특히 “모세율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롬 2:12-15, 17; 갈 2:16, 19; 엡 2:15.

2) BDAG, “νόμος”, 677.

3) E. A. Nida and J. P. Louw,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BS 25 (Atlanta: Scholars, 1992), 60-70.

초래하게 된다.⁴⁾ 특히, 더욱더 난색(難色)을 보이게 만드는 ‘노모스’의 용례는 ‘노모스’와 이 ‘노모스’를 수식하는 소유격 형태의 명사로 이루어진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⁵⁾ 필자는 이러한 표현 중 오직 로마서에만 3회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7:22, 25; 8:7)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이 구에 대한 여러 번역과 함께 몇몇 학자들의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이 표현 안에서 “법”에 해당하는 ‘노모스’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간략하게 조사하며, 이 단어를 하나의 의미로만 고정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속한 문맥 안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전제를 확립하면서, 로마서에 나타난 ‘노모스’의 언어유희와 “하나님의 법”이 속한 문맥적인 정황 안에서 그 의미를 조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 구가 속한 문맥이 바울의 종말론적인 긴장 안에서 놓여 있으며 이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 구를 추적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서의 정황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적합한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2. “하나님의 법”에 대한 중요한 이해들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여러 번역 성경들은 일관되게 번역한다. 몇몇 한글 번역본은 소유격 형태의 ‘떼오스’(θεός)를 “하나님의”로, ‘노모스’를 “법”이나 “율법”으로 번역하며,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해한다.⁶⁾ 한글 번역본들이 이 구를 일관적으로 번역하는 것처럼, 여러 영어 번역본들 역시 ‘떼우’(θεοῦ)를 “of God”나 “God’s”로 이해하며, 이 소유격

4) 예를 들어, 갈 4:21하반(“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롬 3:21하반(“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고전 9:8(“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14:34(“율법에 이른 것 같이”)에 나타나는 ‘노모스’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며, 롬 3:19상반(“율법이 말하는 바는”); 고전 14:21(“율법에 기록된 바”)에 등장하는 ‘노모스’는 구약성경을 의미한다.

5) 예를 들어, 저작성 논란이 없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표현들은 갈 6:2(“그리스도의 법”); 고전 9:9(“모세의 율법”); 롬 3:27(“믿음의 법”); 7:2(“남편의 법”), 22(“하나님의 법”), 23(2회, “내 마음의 법,” “죄의 법”), 25(2회, “하나님의 법,” “죄의 법”); 8:2(2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7(“하나님의 법”); 9:31(“의의 법”)이다. 저작성 논란이 있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표현은 엡 2:15(“계명의 율법”)이다. 또한, 추가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롬 3:27에서 “행위의” 앞에 ‘노모스’가 생략된 것을 고려한다면, 또한 고전 9:21에서 ‘엔노모스 크리스투’(ἐννομος Χριστοῦ)의 ‘엔노모스’를 ‘엔’과 ‘노모스’의 합성어로 이해한다면, 그 용례는 더 늘어날 것이다.

6) 예를 들어, 『개역개정』, 『개역한글』, 『표준』, 『새번역신약』, 『공동』과 『공동개정』은 “하느님의 율법”으로 번역한다.

형태의 ‘떼오스’가 수식하는 ‘노모스’를 “law”로 번역한다.⁷⁾ 여러 번역본에 나타난 비슷한 현상은 ‘노모스’를 기록된 “법”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모스’는 기록된 “법”의 의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⁸⁾ 아마도 ‘노모스’의 의미에 대한 경직된 이해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토라’(תור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칠십인역(LXX)에서 ‘노모스’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해의 관점에서 바울 서신의 ‘노모스’를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⁹⁾

학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이해는 ‘노모스’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히, 7:21부터 등장하는 ‘노모스’의 의미에 대하여 이견을 갖는다. 왜냐하면 ‘노모스’를 율법을 의미한다고 제한한다면 문맥이 부자연스럽게 때문이며, 바울 당대에 ‘노모스’가 기록된 “법”의 의미만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⁰⁾ 그런데도, 많은 학자는 “하나님의 법”이 모세율법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7:21-25에 등장하는 모든 ‘노모스’가 모세율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주장하는 던(J. D. G. Dunn), 마틴(B. L. Martin), 브루스 롱게네커(B. Longenecker), 슈라이너(T. R. Schreiner)와 같은 여러 학자가 있지만,¹¹⁾ 이들 중 대표적인 학자, 던(Dunn)은 ‘노모스’가 바울 당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이 여러 의미가 과연 바울 서신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당시 많은 용례에서 이 단어가 기록된 “법”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모세율법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¹²⁾ 던에 의하면, 모세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즉 양면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의 시대에 속한 죄와 죽음에 관련된 모

7) 예를 들어, ESV, NIV, KJV, RSV, NRSV, YLT, NET, NLT, NKJV, NASB. 주목할 만하게, NLT는 8:7의 표현을 “God’s laws”로 번역하는데, 아마도 단수 형태의 ‘노모스’를 율법의 각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8) D. Moo, “‘Law’, ‘Works of the Law’, and Legalism in Paul”, *WTJ* 45 (1983), 76; T. R. Schreiner, *40 Questions about Christians and Biblical Law* (Grand Rapids: Kregel, 2010), 19-23.

9) 이에 대하여, C. H. Dodd, *The Bible and The Greeks* (London: Hodder & Stoughton, 1935), 25-41을 보라.

10)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11) 예를 들어, J. D. G. Dunn, *Romans 1-8*, vol. 38A, WBC (Dallas: Word, 1988), 392-395; B. L. Martin, *Christ and the Law in Paul*, NovTSup (Leiden: Brill, 1989), 27-28; B. W. Longenecker, *Eschatology and the Covenant: A Comparison of 4 Ezra and Romans 1-11*, JSNTSup 57 (Sheffield: JSOT Press, 1991), 240-241, T. R. Schreiner,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8), 375-379.

12) J. D. G. Dunn, *Romans 1-8*, 392-395.

세율법과 이후의 시대에 속한 성령과 생명에 관련된 모세율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양면성은 바울에게서 발견된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¹³⁾ 그의 주장은 아주 설득력이 있다. 그의 주장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이다.¹⁴⁾ 그러나 바울이 모세율법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누어 이해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 오히려, 율법은 언제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행기”(롬 7:12) 때문에,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율법의 양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사람 안에 내주한 성령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로 이해해야 한다(롬 8:4, 9, 15).¹⁵⁾ 또한, 던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세율법의 양면성을 근간으로 7:21-25에 등장하는 모든 ‘노모스’의 용례를 과연 모세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분명히 바울은 이 단락에서 ‘노모스’라는 단어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 법”(7:21)과 “한 다른 법”(7:23), 그리고 “내 마음의 법”(7:23)에 나타나는 ‘노모스’를 모세율법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던과는 달리, 무(D. J. Moo)는 바울 당시 사용된 ‘노모스’에 대한 여러 의미를 인정하고, 바울 서신 안에서도 이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2절과 2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을 모세율법으로 이해한다.¹⁶⁾ 무의 이해는 고린도전서 9:21의 ‘아노모스 떼우’(ἄνομος θεοῦ)라는 구를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전제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아노모스’는 고린도전서 9:21의 4회를 포함해서 신약성경에 9회 등장하는데, 통상적으로 형용사 형태의 ‘무법’이나 ‘사악’을 의미하기 때문에,¹⁷⁾ 그의 주장의 정당성은 약

13) 이에 대하여, J.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464; 조호형, “새 시대의 삶의 원리로서 성령: ὁ νόμο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ῆς ζωῆς(롬 8:2)에 대한 또 다른 이해”, 「신약연구」 19 (2020), 128을 보라.

14) 예를 들어, 롬 3:19-25; 갈 3:23-25; 4:4-5.

15) 7:14-25와 관련하여, 바울이 이 단락에서 기독교인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다루기 위하여 이 논쟁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하다. 필자는 아래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인의 경험에 비추어 사용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16)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461.

17) 예를 들어, 눅 22:37; 행 2:23; 고전 9:21(4회); 살후 2:8; 딤후 1:9; 베후 2:8. 이 단어의 의미는 BDAG, “ἄνομος”, 85-86; J. P. Louw and E. A. Nid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 2nd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9, 이하 L&N으로 표기), §88.140, §33.57, §11.42를 참조하라. 특히, 고전 9:21과 관련하여, 조호형, “Another Look at ἔννομος Χριστοῦ in 1 Corinthians 9:21”, *ExpTim* 130 (2018), 62-71을 보라.

해진다. 더 아쉽게도, 8:7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의 의미에 대하여, 그는 7:22, 25와 달리, 모세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일관적이지 않은 견해를 밝힌다.¹⁸⁾ 학자들 대부분 의견과 달리, ‘노모스’의 의미를 기록된 “법”으로만 제한시키지 않은 학자들도 있다. 모리스(L. Morris)의 경우, “하나님의 법”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지만, “속사람”(7:22)이라는 표현 때문에 적어도 이구가 율법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¹⁹⁾ 8:7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의 의미에 대한 그의 설명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옳은 것을 행하도록 주신 자신의 법으로 이해한다.²⁰⁾ 롱게네커는 로마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노모스’가 모세율법을 가리킨다고 할지라도, ‘노모스’가 그 당시 하나의 의미만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7:21-23에 등장하는 5회의 ‘노모스’가 모세율법만을 일관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²¹⁾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법”(7:22, 25; 8:2)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이 표현을 들었던 편지의 수신자들은 상당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율법을 의도했다고 할지라도, 이 편지를 접하는 이방인들이 이 표현을 “규칙”이나 “원리”의 의미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²⁾ 아쉽게도, 모리스나 롱게네커는 “하나님의 법”에 나타난 ‘노모스’의 의미를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설명한다. 오즈번(G. R. Osborne)과 마운스(R. H. Mounce), 그리고 크루즈(C. G. Kruse)는 7:21부터 등장하는 ‘노모스’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21절과 23절에 등장하는 ‘노모스’는 “원리”를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법”은 율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왜냐하면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종종 모세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편 37:31과 이사야 1:10, 그리고 예레미

18)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488.

19) L. Morris, *The Epistle to the Romans*, PNTC (Grand Rapids; Leicester: Eerdmans; Inter-Varsity Press, 1988), 295.

20) *Ibid.*, 306.

21) R.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16), 666. 물론, 그는 3:27에 등장하는 “믿음의 법”이라든가, 8:2에 등장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율법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

22) *Ibid.*, 666.

23) G. R. Osborne, *Romans*, IVPNTC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4), 187, 199; R. H. Mounce, *Romans*, vol. 27,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170; C. G. Kruse, *Paul's Letter to the Romans*, PNTC (Cambridge; Nottingham; Grand Rapids: Eerdmans; Apollos, 2012), 309-310.

약 5:4-5에 “하나님의 법”이 등장하지만, 이 표현을 율법을 지칭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3. “하나님의 법”의 어휘 의미론적 고찰

이 구에 대한 일관된 번역들과 학자들의 다양한 이견들을 뒤로 하고, 이 구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과 특히 ‘노모스’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로마서에 3회 등장하는 이 구의 형태는 약간 다르다. 7:22(τῷ νόμῳ τοῦ θεοῦ)와 8:7(τῷ νόμῳ τοῦ θεοῦ)의 경우 ‘노모스’와 ‘떼우’ 앞에 관사가 있지만, 7:25(νόμῳ θεοῦ)의 경우 이 두 단어 앞에 관사가 없다.²⁴⁾ ‘떼우’ 앞에 관사의 유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겠지만, ‘노모스’의 경우, 과거에 관사의 유무에 따라 의미의 차이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²⁵⁾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관사의 유무에 따라서 ‘노모스’의 의미를 달리하려는 시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²⁶⁾ 왜냐하면 관사의 유무로 그 차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로마서 7:7에 등장하는 관사가 있는 ‘노모스’와 관사가 없는 ‘노모스’의 차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갈라디아서 3:11-12 역시 두 개의 ‘노모스’가 등장하지만, 그러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²⁷⁾ 이러한 상황 때문에, 로마서에 3회 등장하는 그리스어로 된 구를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번역할 수 있다. 물론, “법”에 해당하는 ‘노모스’의 의미는 아래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구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감지할 수 있듯이, 여러 견해가 가능한 이유는 ‘노모스’의 의미 때문이다. 실제로 이 ‘노모스’의 의미는 역사 안에서 아주 다양하며, 여러 사전과 단행본이 보여주는 것처럼,²⁸⁾ ‘노모스’의 의미는 풍

24) 롬 7:22와 8:7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에 대한 표현은 ‘노모스’와 ‘떼오스’ 앞에 관사가 등장하고, 7:25의 경우에는 관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관사의 유무로 인하여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본 논문에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지칭하고 그리스어로 표기할 때 관사를 위치시키고 ὁ νόμος τοῦ θεοῦ로 표기한다.

25) G. B. Stevens, *The Pauline Theology: A Study of the Origin and Correlation of the Doctrinal Teachings of the Apostle Paul* (New York: Scribner's, 1892), 160-162.

26) D. J. Moo, “‘Law’, ‘Works of the Law’, and Legalism in Paul”, 75-79; 홍인규, “바울과 율법 -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제안”, 『신약연구』 (2012), 685.

27) ‘노모스’는 롬 7:7에서 2회는 관사가 있는 형태, 1회는 관사가 없는 형태, 이렇게 3회 등장하는데, 의미의 차이는 없다. 마찬가지로, 갈 3:11-12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1절에는 관사가 없는 형태로, 12절에는 관사가 있는 형태로 등장하는데, 이 둘의 의미 차이는 없다.

28) 예를 들어, *BDAG*, “νόμος”, 677-678; *LSJ*, “νόμος”, 1180; *L&N*, §33.55, §33.58, §33.333; J. H.

성하다. 주전 2세기 이전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노모스’는 도시국가와 관련되어 사용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우주에 내재하여 있는 절대적인 법이 반영된 것이 바로 ‘노모스’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²⁹⁾ 이 단어는 도시국가의 발전과 함께 “규칙”이나 “기록된 법”(Andocides, *On the Mysteries*, 83; Heraclitus, *Fragments*, 114; Callimachus, *Hymn V*, 100)을 뜻하기도 했다. 또한, 도시 안의 모든 사람 사이에서 인정된 “관습”(Plato, *Cratylus*, 400e; Aristophanes, *Birds*, 755-757; Herodotus I. 131)을 의미했다. 용례는 많지 않지만, 심지어는 ‘노모스’는 음악의 영역에서 멜로디를 가리키기도 했다 (Pindar, *Olympian*, 1.101). 이처럼, 주전 2세기 이전의 ‘노모스’의 의미는 고정적이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이 ‘노모스’는 도시국가의 발전과 국가 간의 갈등을 통하여,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된다. ‘노모스’를 우주의 법의 반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도시국가가 멸망하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다른 국가의 ‘노모스’를 당연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노모이’(νόμοι)라는 복수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³⁰⁾ 또한, 이 당시 사람들이 속한 국가가 비록 멸망해서 없어졌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에 그 “법”은 남아 있었을 것이고, 이때부터 인간 안에 내재하는 “원리”라는 뜻이 생겨났다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1180a, 21; Plato, *Laws*, IV. 713e-714a).³¹⁾ ‘노모스’의 여러 의미는 주전 2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모세율법”이라는 의미로 자주 나타난다 (Josephus, *Jewish Antiquities*, VII. 131; Justin, *Dialogue*, 45. 3; Melito of Sardis, *On Paschal*, 6; Philo, *On Sobriety*, 49). 아마도 칠십인역(LXX)이나 기독교 문서에 익숙했기 때문에 ‘노모스’가 기록된 “법”으로 많이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노모스’는 하나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동체를 지탱하는 “관습”(Oppian, *Cynegetica*, II. 195)이나 “규칙”(Appian, *The Civil Wars*, V. 44)을 의미하거나, “질

Thay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9), 427-428. ‘노모스’의 여러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H. Räisänen, “Paul’s Word-Play on Νόμος: A Linguistic Study”, D. E. Orton, trans., *Jesus, Paul and Torah: Collected Essays*, JSNTSup 43 (Sheffield: JSOT, 1992), 72-74; J. L. Martyn, “NOMOS Plus Genitive Noun in Paul: The History of God’s Law”, J. T. Fitzgerald, T. H. Olbricht, and L. M. White, eds., *Early Christianity and Classical Culture: Comparative Studies in Honor of Abraham J. Malherbe*, NovTSup 110 (Leiden: Brill, 2003), 575-587; J. Murphy-O’Connor, “The Unwritten Law of Christ (Gal 6:2)”, J. Murphy-O’Connor, ed., *Keys to Galatians: Collected Essays* (Collegeville: Liturgical, 2012), 130-137을 보라.

29) H. Kleinknecht, “νόμος in the Greek and Hellenistic World”, *TDNT* 4, 1026.

30) *Ibid.*, 1028.

31) 이에 대하여, H. Cho, “The Meaning of ‘Ο ΝΟΜΟΣ ΤΟΥ ΧΡΙΣΤΟΥ in Galatians 6:2”, Ph.D.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15), 34-43을 참조하라.

서”(Philo, *Moses*, II. 245; *Every Good Man is Free*, 49)나 “원리”(Lucian, *The Mistaken Critic*, 3; Philo, *Special Laws*, IV. 96)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영역”(Philo, *On Dreams*, II. 271)이나 무언가를 준수하는 “의식”(Josephus, *Jewish Antiquities*, I. 230)으로도 사용된다.³²⁾ 이처럼, 역사적으로 ‘노모스’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신약성경 안에 등장하는 ‘노모스’ 역시 고정된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비록 이 단어가 모세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많지만, 그런데도 독특한 표현의 경우, 문맥적인 정황 안에서 가장 알맞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

4. ‘노모스’를 활용한 언어유희와 “하나님의 법”

로마서에서 바울은 ‘노모스’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의미를 드러낸다. 이 단어는 로마서에 약 74회 정도 나타나는데, 이 중, 약 61회 정도는 “모세율법”을 의미한다.³³⁾ 그러나 다른 용례들은 “모세율법”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지 않는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3:19)이라는 진술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노모스’는 넓은 차원에서 시편과 이사야서를 포함한 “구약성경”을 의미한다.³⁴⁾ 왜냐하면 3:10-18에서 바울은 이 두 성경을 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3:19-26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존재됨을 드러내면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3:27)라고 말한다. 이 진술에서 두 개의 “법”이 등장하는데, 이것들 모두 ‘노모스’에서 온다. 이 두 ‘노모스’는 분명히 “모세율법”을 가리키지 않고, “원리”를 가리킨다.³⁶⁾ 8:2에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선언하는데, 이 진술에서 두 개의 “법” 역시 ‘노모스’에서 온다. 문맥 안에서 이

32) Ibid., 34-43.

33) 롬 2:12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라는 진술에서 “율법 없이”라는 표현이 2회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부사 ‘아노모스’(ἀνόμως)에서 오며, 노모스와 동일 어근을 가지고 있다.

34) F. F. Bruce, *Roma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vol. 6, TNTC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5), 104; J. R. W. Stott, *The Message of Romans: God's Good News for the World*, BST (Leicest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1), 101.

35) 롬 3:10-12에서는 시 14:1 이하; 53:1 이하, 롬 3:13에서는 시 5:9; 140:3, 롬 3:14에서는 시 10:7, 롬 3:15-17에서는 사 59:7 이하, 롬 3:18에서는 시 36:1을 인용한다.

36) L. Morris, *The Epistle to the Romans*, 185-186.

‘노모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나뉜 구속 역사 안에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리킨다.³⁷⁾ 9:31에서도 바울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진술하는데, “의의 법”에서 “법”은 “모세율법”을 의미하지 않고 “원리”나 “규칙”을 나타낸다.³⁸⁾ 이처럼, 같은 ‘노모스’이지만, 이 단어가 속한 문장과 이 문장이 속한 단락 안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포함된 구절과 이 구절을 둘러싼 단락을 살펴보면서, 로마서에 등장하는 나머지 ‘노모스’를 살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법”이라는 구는 7:21-25에 두 번 등장하는데, 전후 문맥을 통하여 이 구에서 ‘노모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7:21에서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고백한다. 이 진술에서 “한 법”(τὸν νόμον)은 “깨달았노니”(εὐρίσκω)의 목적어로서 접속사 ‘호티’(ὅτι)가 이끄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법”으로 번역된 ‘노모스’는 “모세율법”이 아니라,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³⁹⁾ 22절에서 바울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법”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진술되기 때문에, 7장 전체에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모세율법”을 가리킬 것 같지 않다. 물론, 7장에는 율법 그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12절), 이는 주로 율법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의 부정적인 영향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7-11절).⁴⁰⁾ 22절에서 바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상태는 기독교인으로서 바울이 내면에서 좋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전적으로 또한 문법적으로 이 표현을 좀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법”에서 “법”에 해당하는 ‘노모스’는 “원리”를 뜻하며, ‘때우’(θεοῦ)는 주격

37) 조호형, “새 시대의 삶의 원리로서 성령: ὁ νόμο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ῆς ζωῆς(롬 8:2)에 대한 또 다른 이해”, 134-137.

38) C. G. Kruse, *Paul's Letter to the Romans*, 395-396; W. Sanday and A. C. Headlam,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the Romans*, ICC (New York: C. Scribner's Sons, 1897), 279.

39)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460.

40) J. R. W. Stott, *The Message of Romans*, 264-266; T. R. Schreiner, *Handbook on Acts and Paul's Letter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9), 78. 슈라이너(T. R. Schreiner)는 7장에 묘사된 율법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기록하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잘못된 것이 있지 않다(7:12). 그러므로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아름답다. 그런데도, 율법은 죄의 궤도에 진입한다. 죄는 죄의 영향력 아래 율법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태양과 같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지 않고, 실제로 죄에 대한 분위기를 조장한다. 죄는 더 많은 힘으로 불타오르며, 율법을 출발점으로 사용한다.”

(subjective) 소유격으로 “하나님이 주신”이라는 의미와 함께,⁴¹⁾ 이 구를 “하나님이 주신 원리”로 번역해야 한다. 23절에는 ‘노모스’가 3회 등장하는데, “한 다른 법”(ἕτερον νόμον)은 “내 마음의 법”(τῷ νόμῳ τοῦ νοός μου)과 대결 상태이며, “죄의 법”(τῷ νόμῳ τῆς ἁμαρτίας) 안에서 바울 자신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 다른 법”과 “죄의 법”은 같거나,⁴²⁾ 적어도 이 두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대항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 23절의 3회의 “법”은 ‘노모스’인데,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적합하다. 25절에는 22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법”과 23절에 등장한 “죄의 법”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두 “법”은 “원리”를 나타내며,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인 상태에 있음을 보여 준다. 8:7에도 “하나님의 법”은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등장한다. 실제로 이 대립적인 상태는 4-6절에서 육신과 영의 대립으로 확장할 수 있다. 바울은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 ‘노모스’를 가지고 언어유희를 의도한다. 과연 여러 ‘노모스’를 들을 때 각기 다른 의미들을 수신자들이 이해했을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나이다와 로우가 잘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수신자들은 담화 안에서 이 단어를 듣고 문맥적인 정황 안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한다.⁴³⁾ 다시 말해, 로마서 안에 나타난 바울의 언어유희에 대하여 수신자들은 충분히 알아차렸을 것이며, 특히 7:21-25와 8:7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에서 ‘노모스’를 “원리”로 이해했을 것이다.

5.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법”의 의미 이해

이 구가 가리키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속한 주변 문맥적인 정황을 살펴야 한다. 정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 정황이 단어나 구의 의미와 이 표현이 가리키는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

41) 주격 소유격에 대하여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ew York: Hodder & Stoughton, 1914), 499; R. A. Young, *Intermediate New Testament Greek: A Linguistic and Exegetical Approach*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30-31;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with Scripture, Subject, and Greek Word Indexe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113-116을 보라.

42) L. Morris, *The Epistle to the Romans*, 294-295; Osborne, *Romans*, 188.

43) E. A. Nida and J. P. Louw,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 36.

다.44) 필자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법”이 속한 단락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것인데, 특히 7:14-25에 대한 학자들의 이견은 지면의 한계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수 없지만,45) 기독교인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것이다.

5.1. “속사람”과 “하나님의 법”(롬 7:22)

로마서 7:22를 시작하는 후치사 ‘가르’(γάρ)는 21절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바울은 “한 법” 즉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진술한다(21절). 21-22절에서 암시된 갈등은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무엇보다도, 22절에서 “하나님의 법”과 함께 사용된 “속사람”(τὸν ἔσω ἄνθρωπον)은 에베소서 3:16에 나온 “속사람”(τὸν ἔσω ἄνθρωπον)과 같은 표현인데,46) 이 구절에서 성령에 의해 신자들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

44) S. Ullmann, *The Principles of Semantics* (Oxford: Blackwell, 1957), 65.

45) 7:14-25는 바울의 경험과 관련되는데, 과연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경험을 진술하는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을 진술하는지 학자들은 논쟁한다.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주 많다. 대표적인 학자들은 T. R. Schreiner, *Romans*, 370-390; D. J. Moo, *Romans*, 445-447; G. Theissen, *Psychological Aspects of Pauline Theology*, J. P. Galvin trans. (Philadelphia: Fortress, 1987), 183; M. A. Seifrid, *Justification by Faith: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Central Pauline Theme*, NovTSup 68 (Leiden: Brill, 1992), 232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는데, 이들 중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ICC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341-346; J. D. G. Dunn, *Romans 1-8*, 403-406; D. B. Garlington, “Romans 7:14-25 and the Creation Theology of Paul”, *Trinity Journal* 11 (1990), 197-235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두 진영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이 단락을 기독교인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1. 과거 시제(7:1-13)에서 현재 시제(7:14-25)로의 전환은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 2. 7:21-25에 나타난 몇몇 진술들은 오직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22절) 섬긴다(25절)는 표현과 지체 속에서 일어난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의 갈등(21-23절)은 신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22절의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인에게 해당한다. 7:14-25를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내용과 관련된, 7:5의 “육신”이라는 표현이 7:14-25에서도 등장한다. 2. 7:14의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표현 역시 신자가 되기 이전을 묘사하는 것 같다. 더 나아가, 23절에서 “죄의 법”이 사로잡는다는 표현도 신자 이전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다. 이처럼, 양 진영의 주장은 팽팽하며 설득력이 있지만, 필자는 이 단락을 기독교인의 경험으로 본다.

46) 비록 필자는 에베소서 3:16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하지만, 에베소서의 저작성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서 편의상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E. D. Freed, *The Apostle Paul and His Letters* (New York: Loutledge, 2014), 4-5를 보라. C. E. Arnold, *Ephesi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46-50.

게” 된다고 진술된다. 비슷한 또 다른 표현은 고린도후서 4:16에서 “우리의 속”(ὁ ἔσω ἡμῶν)이라는 표현이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면서 신자의 구원의 상태를 암시한다.⁴⁷⁾ 이 두 구절에 비추어,⁴⁸⁾ 7:22의 “속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며,⁴⁹⁾ 이 “속사람”은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16에서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 강건하게(κραταιωθῆναι) 된다고 진술되며, 고린도후서 4:16에서도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ἀνακαινοῦται) 진술되기 때문이다. 4:16에 새롭게 만드는 주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진술이 속한 단락(4:16-5:10)에서 그 주체가 성령임을 알 수 있다(5:5). 로마서 7:22의 경우, 직접적으로 성령이 등장하지 않지만, 더욱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신자의 구원받은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8:7-8에서 육신에 속한 자, 즉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도 않고 따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⁵⁰⁾

5.2. “마음”과 “하나님의 법”(롬 7:25)

로마서 7:25에도 “하나님의 법”이 등장하는데, 25절은 24절에서 제시된 답변을 함축하고 있다. 물론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진술이 신자로서 하는 고백인지 불신자로서 하는 고백인지 이견이 있지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8:23)라는 진술에서 “몸”은 신자가 죽음의 몸에서의 구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24절의 “이 사망의 몸” 역시 신자의 종말론적인 구속을 나타내는 것이다.⁵¹⁾ 또한, 24절을 신자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23절에 나타난 두 주체의 대립 때문이다. 만약 불

47)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46 n.67에서 엡 3:16에 등장하는 “속사람”이 반드시 신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이 구절에서 성령의 존재와 이 구절이 속한 3:14-21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단락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또한, 고후 4:16의 경우, 속사람과 겉사람의 비교를 구원론적이지 아니라 단순히 인간론적인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구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고, 이 “우리”는 신자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무(D. J. Moo)의 주장은 의문스럽다.

48) 엡 3:16과 고후 4:16에 나타난 표현과 비슷하게, 골 3:10의 “새 사람”(τὸν νέον)과 엡 4:24의 “새 사람”(τὸν καινὸν ἄνθρωπον)을 참조할 수 있다.

49) C. E. B.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363.

50) F. F. Bruce, *Romans*, 157.

51) C. E. B.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368.

신자의 관점에서 진술되는 구절이라면, 이러한 갈등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롬 1:28). 어쨌든, 바울은 24절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을 25상반절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신자는 건져지게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25절에서 “마음”과 “육신”을 대조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비교한다. 여기에서 “육신”은 신자가 삶 속에서 계속되는 죄와의 사투를 암시하며, 죄에 노출되기 쉬운 타락된 본성을 의미한다.⁵²⁾ “마음”은 새롭게 된 마음으로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된다. 7:22에서처럼, 성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이미 성령에 의해 변화된 신자의 내면이 이곳에서도 드러난다. 바로 신자의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에 종속되는데, 이 원리는 새롭게 된 신자의 “마음”에 필수적인 “성령”을 가리킨다.⁵³⁾

5.3. “육신”과 “하나님의 법”(롬 8:7)

로마서 8:7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 구절에서 “육신”(σάρξ)과 “하나님”이 대립 관계인데, 이 구절이 속한 8:1-17 역시 “육신”과 “영”(πνεῦμα)의 대립적인 관계를 잘 나타낸다. 여기에서 “육신”과 “영”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 두 표현은 이 단락 곳곳에 등장한다(“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4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5절]; “육신의 생각은 … 영의 생각은”[6절]; “육신대로 살면 …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13절]). 이 두 표현을 존재론적으로 보느냐⁵⁴⁾ 아니면, 신자들 내면에 있는 갈등으로 보느냐,⁵⁵⁾ 이 문제는 학자들 사이의 논쟁 중 하나이다. 물론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단락 안

52) F. F. Bruce, *Romans*, 159.

53) ‘δουλεύω’(δουλεύω)의 의미에 대하여, *BDAG*, “δουλεύω”, 259; *LSJ*, “δουλεύω”, 446을 참조하라.

54) J. A.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3 (New York: Doubleday, 1993), 488; G. D.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Hendrickson, 1994), 539-540; R. H. Mounce, *Romans*, 177; T. R. Schreiner, *Romans*, 410-411;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485-486; J. R. W. Stott, *The Message of Romans*, 223-224; C. G. Kruse, *Paul’s Letter to the Romans*, 330. 룽게네커(R. N. Longenecker)의 경우, 신자와 불신자의 비교일 수도 있고, 신자이지만 덜 성숙한 신자들의 상황이라고도 한다(R.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697).

55) C. E. B.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385-387; J. D. G. Dunn, *Romans 1-8*, 425.

에서 신자의 주요한 특징으로 대두되는 것이 분명하다.⁵⁶⁾ 그러나 “육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육신”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영”을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한다. 만약 이 두 표현을 다른 두 존재의 양상으로 이해한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를 불신자로, “영”을 따르는 자를 신자로 이해하는 것이다.⁵⁷⁾ 이와 달리, 만약 각 신자 안에 있는 같등으로 본다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의 그림자를 지닌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같등으로 보는 것이다. 이 두 관점은 8:1-17에 등장하는 “육신”과 “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견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표현이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바울에게서 나타난 종말론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신자의 존재론에서 기인한 이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다시 말해, 이 두 표현은 신자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을 8:2가 명시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즉 그 원리(νόμος)가 죄와 사망이라는 원리(νόμος)에서 신자를 해방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소유격 형태의 두 번의 ‘노모스’는 “원리”를 뜻하며 동격 소유격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죄와 사망”을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지칭한다.⁵⁸⁾ 이렇게 새 시대에 속한 신자이지만, 각 신자는 현재의 삶 속에서 “육신”의 것에 노출되어 있다. 8:7이 속한 단락의 흐름 안에서 8장의 육신과 영의 대립을 고려했을 때, 7절 역시 신자의 내면 같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신자 안에 내주한 성령의 존재는 분명하다(8:2, 9). 그런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양상은 극단적으로 성령을 따르지 않도록 한다. 7절은 8:1-17의 문맥 안에서 계속 강조되는 “육신”과 “영”의 대립이라는 구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진술은 “육신”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전적으로, 문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리’로 이해되며, 이것은 곧 “성령”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56) 성령이라는 주제로 단락을 구분하자면, 8:1-17보다 더 확장하여, 8:1-30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절들 안에 나타난 ‘프뉴마’(πνεῦμα)라는 단어는 21회이며(8:2, 4, 5[2회], 6, 9[3회], 10, 11[2회], 13, 14, 15[2회], 16[2회], 23, 26[2회], 27), 오직 2회만을 제외하고(8:15, 16) 그 의미가 “성령”을 뜻한다.

57) 엄밀하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 두 표현이 전혀 다른 존재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역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보여 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종말론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58) 조호형, “새 시대의 삶의 원리로서 성령: ὁ νόμο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ῆς ζωῆς(롬 8:2)에 대한 또 다른 이해”, 135-137.

6. 로마서에 나타난 종말론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법”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구조를 가진 바울의 종말론 사상은 유대교의 종말론과는 사뭇 다르다. 유대교의 사상은 메시아 도래를 기점으로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가 극명하게 구분된다.⁵⁹⁾ 바울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기점으로 두 시기가 나뉘지만(갈 3:23-25; 4:4), 유대교의 종말론처럼 단절의 모습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것처럼,⁶⁰⁾ 로마서 안에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구조가 나타난다. 3:9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데, 분명히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5:12-21).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진술은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시대를 가리키며 로마서 곳곳에 이 시대에 대한 묘사들이 나타난다(예를 들어, 1:18-3:8; 6:14-18). 이렇게 죄에 매인 모든 사람이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3:23-25가 보여줌으로써,⁶¹⁾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시기를 마감했음을 시사한다. 바울은 5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가져온, 신자의 의롭게 된 상태를 보여 준다. 특히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임을 나타낸다(5:6-10).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이 두 존재에 의한 행동이 가져온 세상의 상태를 5:12-21에서 바울은 자세히 설명한다.⁶²⁾ 이 단락에서 바울의 요지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이 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 사건으로 이 옛 시대를 종결시키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⁶³⁾ 새 시대의 시작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59) J.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461-498.

60) 예를 들어, E. Käsemann, “Justification and Salvation History in the Epistle to the Romans”, *Perspectives on Paul*, M. Kohl, trans. (Philadelphia: Fortress, 1971), 60-78; R.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154-192; G.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3), 397-614; F. Tolmie, “Living in Hope ‘in the Fullness of Time’—The Eschatology of Galatians”, *Eschatology of the New Testament and Some Related Documents*, J. G. Van der Watt, ed., WUNT 315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39-255; 조호형, “Believers in the Situation of the Overlapping of the Old Era and the New One: Exegetical Notes on 6:1-14 in Light of Pauline Eschatology in Romans”, 『한국개혁신학』 64 (2019), 43-76.

61) L. Morris, *The Apostolic Preaching of the Cross* (Grand Rapids: Eerdmans, 1965), 22-26.

62) 아담과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호형, “새 시대의 삶의 원리로서 성령: ὁ νόμο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ῆς ζωῆς(롬 8:2)에 대한 또 다른 이해”, 124를 보라.

63) 또한, 롬 7:4를 참조하라.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417.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관련된다(1:4; 4:24-25; 5:10; 7:4; 8:11, 34; 10:7; 14:8-9).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시대와 이전의 시대를 잘 묘사하는 진술이 6:14인데, 바울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법”은 모세율법을 의미하며,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옛 시대를 가리키지만, “은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새 시대를 나타낸다.⁶⁴⁾ 신자들은 이제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에 속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노출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자들의 이러한 정체성 때문에 바울은 신자들이 옛 시대에서 벗어나 새 시대에 속한 존재들이라고 하여도 삶 속에서 신자의 정체성에 적합한 삶을 살도록 계속 권면한다(로마서 곳곳에 권면이 등장하지만, 특히 12-15장). 이들은 최종적으로 옛 시대가 마감되고 완성될 새 시대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존재들이다(8:23-25).⁶⁵⁾ 여기에서 유대교의 종말론은 더 이상 바울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두 시대가 겹쳐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수정된 유대교 종말론이 나타나게 된다.⁶⁶⁾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출발한 새 시대가 옛 시대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 이 겹친 시대를 살아가는 새 시대의 백성들인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신자들을 위한 삶의 “원리”로서 기능을 하며, 이들이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한다.⁶⁷⁾

7:21-25가 바울이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기독교인의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인지 학자들의 이견이 상당하고, 8:1-17에 등장하는 “육신”과 “영”이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아니면,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인지, 학자들의 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단락들은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있는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미 구원받은 새 시대의 백성이지만, 아직 죄의 모습이 존재하는 신자는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64) 조호형, “Believers in the Situation of the Overlapping of the Old Era and the New One”, 43-76을 보라.

65) C. E. B.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417-420.

66) 필자는 갈 6:2의 “그리스도의 법”과 고전 9:21의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롬 8:2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타난 “법”을 “원리”로 이해하며, 이 구들이 가리키는 것은 신자들을 위한 삶의 원리로서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호형, “갈라디아서 6:2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연구”, 『신약연구』 14 (2015), 516-543; H. Cho, “Another Look at *ἐννομος* Χριστοῦ in 1 Corinthians 9:21”, 65-66; 조호형, “새 시대의 삶의 원리로서 성령: ὁ νόμο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ῆς ζωῆς(롬 8:2)에 대한 또 다른 이해”, 109-144를 참조하라.

67) 이에 대하여 J.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464를 보라.

살아간다. 그럼에도 잔재하는 육신의 생각과의 갈등을 겪게 된다. 이 갈등은 7:21에서 드러나는데, 신자는 “한 원리” 즉 선을 행하려는 자신에게 여전히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모습은 신자 안에 여전히 잔재하는 죄의 양상이다. 22절에서 신자의 내면을 가리키는 “속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속사람”은 계속 성령에 의해 새로워진다. 자연스럽게, 신자는 “하나님의 법,” 즉 새 시대의 백성에게만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23절은 신자의 내적 갈등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한 다른 법” 즉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일맥상통하며,⁶⁸⁾ 신자에 내주하는 “원리”로서 성령을 가리킨다 (8:9-11 참조). 신자의 지체 속에서 성령과 여전히 있는 죄와의 갈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바울은 24절에서 신자의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아직 아니’의 지점을 강조하면서, 몸의 속량(8:23)을 기다리는 존재를 묘사한다. 25절에서도 신자의 종말론적인 긴장은 지속하는데, 신자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즉 성령과 아직 존재하는 “죄의 원리”의 갈등이 묘사된다. 8:7은 8:1-17에 속한 구절로서, 이 단락은 신자의 내면과 관련하여 “육신”과 “영”이라는 종말론적인 갈등을 반복적으로 묘사한다. 8:7에서도 신자에게 남아 있는 죄의 모습인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이 대립적인 관계 안에 놓이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7:22, 25에서처럼, 신자에게 내주한 “성령,” 즉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의미한다.

7. 결론

필자는 지금까지 로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7:22, 25; 8:7)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구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 구가 오늘날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또한 학자들은 이 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이 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특히 이 구의 “법”에 해당하는 ‘노모스’의 사전적인 의미와 문맥적인 정황의 중요성을 드러내었다. ‘노모스’의 의미는 현대인들이 고정적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과 달리, 역사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문맥이 상당히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 ‘노모스’의 여러 의미 중, 많은 학자가 선호하는 “모세율법”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의 여러 구절 안에서 자주 언어유희를 사용하

68) G. R. Osborne, *Romans*, 188.

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원리”가 적합하다는 것을 밝혔다. 더 나아가, ‘노모스’가 “원리”를 뜻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이 구가 속한 각 문맥을 살펴보았다. 이 구가 속한 7:21-25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을 염두에 두면서, 이 구절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바울의 고백으로 이해하고 “속사람”(7:22)과 “마음”(7:25), 그리고 “육신”(8:7)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는지 그 문맥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로마서에 분명히 드러나는 종말론의 관점 안에서 이 구를 조사하였다. 위 고찰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라고 이해되어야 하며, 이 “원리”는 신자 안에 내주한 “성령”을 가리키고 있음을 필자는 주장한다.

<주제어>(Keywords)

하나님의 법, 노모스(νόμος), 원리, 종말론, 성령.

The Law of God, Nomos (νόμος), Principle, Eschatology, Spirit.

(투고 일자: 2022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조호형, “갈라디아서 6:2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연구”, 「신약연구」 14 (2015), 516-543.
- 조호형, “새 시대의 삶의 원리로서 성령: ὁ νόμο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ῆς ζωῆς(롬 8:2)에 대한 또 다른 이해”, 「신약연구」 19 (2020), 109-144.
- 조호형, “Believers in the Situation of the Overlapping of the Old Era and the New One: Exegetical Notes on 6:1-14 in Light of Pauline Eschatology in Romans”, 「한국개혁신학」 64 (2019), 43-76.
- 홍인규, “마울과 율법-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제안”, 「신약연구」 (2012), 679-704.
- Arnold, C. E., *Ephesi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 Bruce, F. F., *Roman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vol. 6, TNTC,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5.
- Cho, H., “Another Look at ἔννομος Χριστοῦ in 1 Corinthians 9:21”, *ExpTim* 130 (2018), 62-71.
- Cho, H., “The Meaning of ‘O NOMOS TOY XPISTOY in Galatians 6:2””, Ph.D.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15.
- Cranfield, C. E.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ICC,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Danker, F. W., et al.,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Dodd, C. H., *The Bible and The Greeks*, London: Hodder & Stoughton, 1935.
- Dunn, J. D. G., *Romans 1-8*, vol. 38A, WBC, Dallas: Word, 1988.
- Dunn, J. D. 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 Fee, G. D.,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Hendrickson, 1994.
- Fitzmyer, J. A.,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3, New York: Doubleday, 1993.
- Freed, E. D., *The Apostle Paul and His Letters*, New York: Routledge, 2014.
- Garlington, D. B., “Romans 7:14-25 and the Creation Theology of Paul”, *Trinity Journal* 11 (1990), 197-235.
- Hays, R.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Käsemann, E., “Justification and Salvation History in the Epistle to the Romans”, *Perspectives on Paul*, Margaret Kohl, trans., Philadelphia: Fortress, 1971, 60-78.

- Kleinknecht, H., “νόμος in the Greek and Hellenistic World”, *TDNT* 4, 1022-1035.
- Kruse, C. G., *Paul's Letter to the Romans*, PNTC, Cambridge; Nottingham; Grand Rapids: Eerdmans; Apollos, 2012.
- Ladd, G. E.,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3.
- Liddell, H. G., Scott, R., and Jones, H. S., eds.,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 with revised supplement, Oxford: Clarendon, 1996.
- Longenecker, B. W., *Eschatology and the Covenant: A Comparison of 4 Ezra and Romans 1-11*, JSNTSup 57, Sheffield: JSOT Press, 1991.
- Longenecker, R. N.,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16.
- Louw, J. P., and Nida, 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6.
- Martin, B. L., *Christ and the Law in Paul*, NovTSup 62, Leiden: Brill, 1989.
- Martyn, J. L., “NOMOS Plus Genitive Noun in Paul: The History of God's Law”, J. T. Fitzgerald, T. H. Olbricht, and L. M. White, eds., *Early Christianity and Classical Culture: Comparative Studies in Honor of Abraham J. Malherbe*, NovTSup 110, Leiden: Brill, 2003, 575-587.
- Moo, D. J., “‘Law’, ‘Works of the Law’, and Legalism in Paul”, *WTJ* 45 (1983), 73-100.
- Moo, D. J.,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Morris, L., *The Apostolic Preaching of the Cross*, Grand Rapids: Eerdmans, 1965.
- Morris, L., *The Epistle to the Romans*, PNTC, Grand Rapids; Leicester: Eerdmans; Inter-Varsity Press, 1988.
- Mounce, R. H., *Romans*, vol. 27,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 Murphy-O'Connor, J., “The Unwritten Law of Christ (Gal 6:2)”, J. Murphy-O'Connor, ed., *Keys to Galatians: Collected Essays*, Collegeville: Liturgical, 2012, 123-143.
- Nida, E. A. and Louw, J. P.,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BS 25, Atlanta: Scholars, 1992.
- Osborne, G. R., *Romans*, IVPNTC,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4.
- Räisänen, H., “Paul's Word-Play on Νόμος: A Linguistic Study”, D. E. Orton, trans., *Jesus, Paul and Torah: Collected Essays*, JSNTSup 43, Sheffield: JSOT, 1992, 69-94.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ew York: Hodder & Stoughton, 1914.

- Sanday, W., and Headlam, A. C.,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the Romans*, ICC, New York: C. Scribner's Sons, 1897.
- Schreiner, T. R., *40 Questions about Christians and Biblical Law*, Grand Rapids: Kregel, 2010.
- Schreiner, T. R., *Handbook on Acts and Paul's Letter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9.
- Schreiner, T. R.,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8.
- Seifrid, M. A., *Justification by Faith: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Central Pauline Theme*, NovTSup 68, Leiden: Brill, 1992.
- Stevens, G. B., *The Pauline Theology: A Study of the Origin and Correlation of the Doctrinal Teachings of the Apostle Paul*, New York: Scribner's, 1892.
- Stott, J. R. W., *The Message of Romans: God's Good News for the World*, BST, Leicest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1.
- Thayer, J. 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9.
- Theissen, G., *Psychological Aspects of Pauline Theology*, J. P. Galvin, trans., Philadelphia: Fortress, 1987.
- Tolmie, F., "Living in Hope 'in the Fullness of Time'—The Eschatology of Galatians", J. G. Van der Watt, ed., *Eschatology of the New Testament and Some Related Documents*, WUNT 315,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39-255.
- Ullmann, S., *The Principles of Semantics*, Oxford: Blackwell, 1957.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with Scripture, Subject, and Greek Word Indexe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Young, R. A., *Intermediate New Testament Greek: A Linguistic and Exegetical Approach*,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Abstract>

Another Look at “the Law of God” (Rom 7:22, 25; 8:7)

Ho Hyung Cho
(Chongshin University)

In Paul’s epistles, νόμος is usually translated as a codified “law” such as the “law of Moses” or the “Old Testament”. If one interprets the sentence in which this word is used only with its fixed meaning, he or she may have a limited understanding without any choice. Indeed, with regard to today’s situation in which such an understanding is dominant, W. Bauer, J. P. Louw, and E. A. Nida criticize attempts to confine the meaning of νόμος to only the written *law*. Pondering the situation associated with the word, I explor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law of God” (7:22, 25; 8:7) in Romans. By examining some translations of this phrase and the various opinions of scholars, I reveal that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in understanding this phrase stems from the word νόμος; translations consistently allude it to a codified “law”, and many scholars appear to limit its meaning to the law of Moses. Although some scholars translate it as “principle”, they do not take the contextual situation into account, and do not adequately disclose the meaning of the phrase. I give several examples of its meanings in history. By exposing its various meanings, I draw on the presupposition that when a word has multiple meanings, it must be revealed within the surrounding context to uncover the meaning of the word. In addition, showing that Paul uses a wordplay with νόμος in Romans, I lexically and grammatically maintain that θεοῦ in the phrase is a subjective genitive, and νόμος is a “principle”. In 7:14-25 where the phrase appears twice, there is a matter of scholarly debate as to whether it was Paul’s pre-Christian experience or his Christian experience. Still, I recognize it as a Christian experience, investigating how the “inner being” (7:22) and “mind” (7:25) relate to “the law of God.” Importantly, the “inner being” and “mind” represent the inside of a believer, and the law of God resides within the believer. In 8:1-17, the phrase occurs once with “flesh” (8:7). Considering that “flesh” and “Spirit” are opposites in the paragraph. The phrase signifies a “principle” essential to the life of a believer. Scrutinizing this phrase in context in this way, I show, in the light

of Paul's eschatology in Romans that “the law of God” implies the eschatological tension/conflict in believers.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I argue that the law of God is a “God-given principle”, that is, “the Holy Spirit”.